

삼성전자, 반도체 투자 대폭확대

현대자동차와 자동차용 MOU 체결 ... 3/4분기 성수기 시황 기대

삼성전자가 하반기 반도체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권오현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사장은 7월16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현대자동차와 자동차용 반도체 협력 양해각서 조인식에서 “상반기에는 세계적인 불황으로 반도체 투자도 패닉 상태였다”며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2009년 상반기 반도체 부문에서 공정 개선을 위해 일부 투자를 집행했지만,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PC 수요가 급감하면서 제대로 된 대규모 설비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권오현 사장은 “2/4분기에는 영업실적이 흑자 전환됐지만 아직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며 3/4분기는 전통적으로 성수기여서 2/4분기보다는 시장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7/16>